

12 July, 2019

Moon Ja Kim

KWCTU NZ Chapter

Auckland, New Zealand

Dear Madame President, world officers and all my fellow temperance workers,

Hyvää päivää! Greetings to you all!

I am unspeakably grateful to God for allowing m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t the 41st World WCU Convention. I live everyday experiencing God's miracle. Being here is a true miracle. I was diagnosed with malignant cancer last September, that I have only six months to live at the most. That six month milestone has already passed. In May this year, I underwent another round of thorough examination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The result came out that the surgery is not longer an option to consider for certain, and I would not live for long.

I am not afraid because I already received the promise of the salvation and the eternal life. I have received countless blessings from God through my life and I would like to share three of them with you today. First, it is a great blessing to have been led to the WCTU and become a part of this significant ministry of God. I was born a weak woman but I could voice the importance of the temperance with the gospel of Christ to the world. Second, I am blessed to have received abundant love of God and of His

faithful servants,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Last, I am blessed to have received the gift of peace and joy, knowing that I will meet you again even if it will not be at the next convention. I love and bless all of you. I will give my all to the temperance ministry until my last breath. Kiitos. Thank you.

In Christ,

Moon Ja

---

친애하는 회장님 이하 이곳에 함께 참석한 세계 절제회 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나의 이름은 김문자이고,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절제회 지부의 회원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작년 9월에 뉴질랜드의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최대한 6개월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6개월의 시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지난 5월에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서 다시 자세한 검사를 받고, 그것은 당장 수술할 수 없는 상태이며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진단을 외,내과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생의 약속과 함께 구원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 WTCU를 알게 되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연약한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절제의 필요성을 전하며 외치는 강한 자로 살 수 있어서입니다.
- 나는 주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평생을 살게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을 흡족이 받는 자로 살게하신 것입니다.
- 만일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 곁에 간다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슬프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만나는 순간까지 절제활동에 힘쓸 것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제 41회 WWCTU 세계 컨벤션에서

김문자의 3분 간증